

[제11회 늘푸른연극제 심사총평]

11회를 맞이한 늘푸른연극제는 단순히
원로선생님들의 공적을 기리는 심의가 아닌,
현재 관객들의 시선에서도
소통과 고전의 향기, 원로의 품격을 느낄 수
있는 작품들을 우선하려 했습니다.
심의회원들끼리 의외로 빠른
의견일치를 통해 선정하였음도 밝힙니다.
안타까운 몇 분의 지원서가 있었고
축제가 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있었으면
 좋겠다는 의견도 밝힙니다.